

##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일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김 소야자\* · 공 성 숙\*\* · 김 명 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를 맞이하여 급격한 산업발달과 정보사회로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나 지나친 문명발달로 인한 인간소외나 공허감 등은 인류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약물에 탐닉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사범 중에서 10대 청소년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2년에는 3,995명, 1995년에는 6,277명으로 약 1.6배가 증가하였으며, 대마사범의 경우에도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약 6%를 차지하고 있어 흡연을 비롯한 청소년의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조선일보, 1999.5.14).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심리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약물남용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주장성, 사회적 통제감, 친구들의 압박에 대한 취약성, 스트레스, 사회기술 등이 있다(Kaplan & Martin,

1984). 즉, 학교 또는 부모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우울 등이 청소년에게 있어 약물남용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행동을 발전시킬 수 있다(Riesch 등, 1993). 또한 우울이나 지루함, 피곤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거나 절망감이라는 압도적인 감정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김진희, 1999). 뿐만 아니라 약물남용은 비행 또는 범죄로 연결되는데 이는 비행청소년이 약물과의 접촉 기회가 많고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심영희, 1993).

이러한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중재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데 최근 행해지고 있는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중재 프로그램은 기존의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교과서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심리적 변인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 뿐 아니라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약물남용 정도를 파악하는 실태조사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약물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전임강사(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남용 실태조사에 관련된 논문은 45편 이상이고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형사정책연구원 등의 정부기관 또한 수 차례에 걸쳐 대규모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는데(김성이 등, 1996; 김준호, 박정선, 1995; 차경수 등, 1993; 김소야자 등, 1991) 여기에서 사용된 약물남용 실태조사 방법이 서로 달라 많은 수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기초자료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약물남용 실태를 조사하고 심리적 변인으로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정도를 파악하여, 각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유도하고 향후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1개 남자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도구(김소야자, 오경자, 1998)를 사용하여 약물남용 정도와 심리적 변인들을 조사하고, 약물남용 정도에 따른 심리적 변인의 차이와 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 3. 용어정의

#### 1) 우울

우울이란 무희망감, 불안정감, 슬픈 감정이나 우울감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감소되거나 불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된다(APA, 1994). 본 연구에서는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Radloff, 1977)을 사용하여 측정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나 사랑 및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느낌으로 정의되며(Polivy & Herman, 1993), 본 연구에서는 Coopersmith가 개발한 Self Esteem Inventory(SEI)를 사용하여 측정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3) 사회성

사회성이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하며(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1969), 본 연구에서는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1969)의 성격진단 검사척도 중에서 "사회성"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비행행동

비행행동이란 법적으로 규정된 객관적인 일탈행동뿐 아니라 공공의 사회적 가치체계를 침범하거나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부도덕적 행위까지 포함한다(김영범, 198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으로서 가출, 무단결석, 절도, 패거리 행동 등을 포함하여 김소야자(1991)가 개발한 '비행행동' 도구를 이현숙(1997)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II. 문헌 고찰

### 1.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학교청소년의 경우 음주가 89년 48.0%에서 96년 71.3%로 증가했으며 흡연은 89년 33.1%에서 96년 28.1%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본드의 사용율은 연도별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가스는 91년 1.5%, 96년 3.7%로 증가하였으며 비행청소년은 본드와 가스 사용율이 모두 현격한 증가를 보였다(김소야자, 오경자, 1998).

김소야자 등(1998)이 약물남용 상담센터를 방문한 15명의 청소년과 서울시 1개 중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담센터 청소년 집단의 경우 지난 12개월간의 경험빈도에 있어서는 술과 담배가 각각 87%와 94%를 차지하여 평생 경험빈도와 거의 동일하고, 가스는 평생 경험 20%에 비해 지난 12개월간의 경험은 거의 없었다(0%). 또한 본드는 4-5명으로 27-34% 정도로 나타났고, 그밖에 작성제 3명(20%), 러미나와 대마초는 각각 1명(7%)이었으며, 기타 수면제, 신경안정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히로뽕, 아편, 다른 아편제, 환각제 등을 사용한 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

생 집단의 경우 지난 12개월의 경험은 술과 담배가 각각 47%와 10%로 상담센터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났고, 본드, 각성제, 러미나가 각각 1-2명으로 소수 있었으며, 수면제, 신경안정제는 각각 2명씩(7%)으로 나타나 오히려 상담센터 청소년보다 더 사용율이 높았다.

YMCA 동대문지회(1998)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와 소년원, 약국을 대상으로 하여 약물남용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에서 인문계는 남녀공학 1개, 남학교 1개, 여학교 1개 학교에서 시행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약물남용 실태는 술이 80.4%, 담배 47.4%, 본드 3.3%, 가스, 1.9%, 각성제 3.8%, 대마초 0.5% 등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청소년의 경우 지놀타, 라식스, 에스정, 프링가, 프링가울 등은 사용율이 전혀 없었다(0%).

1990년 이후 논문과 1994년부터 1999년 3월까지의 주요 일간지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남용하고 있는 약물은 술과 담배였으며 그밖에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흡입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민영숙, 1999).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청소년 약물남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대책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1989년부터 체육청소년부 주관으로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조사가 광범위한 전국 규모로 매 2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해마다 많은 수의 학위논문과 국책연구가 행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약물남용에 대한 정의, 대상 약물의 선정 및 분류방법,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도구 등이 서로 달라 그 결과를 통합하거나 상호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비교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앞으로 약물남용 실태조사를 위한 도구를 한가지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 2.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심리적 변인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학습성취, 인간관계 형성 등의 발달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내외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아동기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에 처하는 반면 이제까지의 대처방법으로는 갈등이나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므로 약물남용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행동으로 진전되기도 한다(Riesch 등, 1993).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가 많이 행해져 왔다. Dielman 등(1987)의 연구에서는 약물남용을 중용하는 친구들의 압박에 대한 취약성, 자아존중감, 건강에 대한 내적 통제 등이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Kandel(1982)은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우울,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 부족, 학업 실패, 낮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학교 부적응, 학업성취, 비행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승룡(1993)은 남녀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적응력도 높고,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학교, 가정, 사회문제에 원만히 대처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Morganet(1990)은 자아존중감과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비행이나 약물남용 행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는 바, Emery(1993)는 자아존중감이 담배, 알콜, 기타 약물의 남용과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현명선(1996)도 약물남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결과, 이들이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불충분감을 갖고 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약물로 대리만족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Coleman과 Lindsay(1992)는 사회기술이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오게 하므로 약물남용에 대한 사회적 압력에 취약해진다고 설명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우울이 공존한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입증하였는데, Craighead(1991)는 우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가 문제행동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우울이 일차적인 문제로 선행되어 행동상의 문제들을 이끄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 이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Brage, 1995).

이러한 청소년의 우울이나 자아존중감은 사회성이나 사회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Coleman과 Lindsay(1992)는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는 청소년의 사회기술과 관련이 많은데, 이들 청소년은 우울로 인해 대인관계를 하고자 하는 에너지나 동기가 결여되어 있으며 대인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적절한 기술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미경(1991)은 열등감이 높고 소극적이며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위축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주저하므로 또래나 성인에게 자기주장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고 보고함으로써 자아존중감과 사회성과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문헌을 통해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 등을 비롯한 여러 심리적 변인들이 상호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약물남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아직 이러한 변인들을 연결지어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교생의 약물남용 정도와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성, 비행행동 정도를 조사하고 약물남용에 따른 심리적 변인의 차이와 이 변인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한 1개 고등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1학년 학생 452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였으며, 이 중 설문지를 미완성한 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대상자 수는 444명이다.

####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과 약물남용정도,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성, 비행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 1) 약물남용 측정도구

약물남용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도구로는 김소야자, 오경자(1998)가 향후 약물남용 실태조사 도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WHO 조사연구를 번역한 것으로, 개발과정은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조사하고 국내외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비교분석 한 후 약물관련 전문가 집단 및 약물남용

청소년 상담실무자들의 자문을 거쳐 도구에 포함될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약물남용 청소년 15명과 일반중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3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술, 담배, 가스, 본드, 신나 등의 흡입제, 각성제, 히로뽕, 코카인, 수면·신경안정제, 러미나, 대마초, 아편제, 환각제, 근골격이완제(S정), 푸링가·푸링가울, 라식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에 대해 각각 평생 사용경험, 최근 12개월과 30일 이내의 사용경험을 '예, 아니오'로 질문하고 사용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일수와 처음 사용한 연령을 각각 4점 척도와 7점 척도로 질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2)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에 대한 도구는 Coopersmith가 개발한 Self Esteem Inventory(SEI)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또래집단 혹은 동료와 부모, 학교, 그리고 개인적 관심 등 네 가지 영역에 관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총 25문항이며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100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88로 나타났다.

##### 3) 우울 척도

우울에 관한 도구는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Radloff, 1977)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증과 관련된 20개 증상들에 대해 1주일동안 몇 번이나 느꼈는지를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 20-80점의 범위로 60점 이상이면 우울이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도구는 일반인 집단에서 Chronbach's alpha = .85, 정신장애인 집단에서 Chronbach's alpha = .90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Fischer와 Corcoran, 1994).

##### 4) 사회성 척도

사회성에 관한 도구는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1969)의 성격진단 검사척도 중에서 "사회성"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총점은 35-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919로 나타났다.

##### 5) 비행행동 척도

비행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는 김소야자(1991)가 개발하고 이현숙(1997)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청소년기에 가장 흔한 비행행동에 대한 경험유무를 묻는 것으로 심한 반항, 무단결석, 학교에서의 처벌, 가출, 경찰서 보호, 상점에서의 절도, 흥기 소지, 음란비디오 관람, 금품갈취, 패싸움에 대한 총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행행동의 빈도에 따라 1점부터 4점까지이며 총점은 10-40점의 범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 = .798이다.

#### 6)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연령, 용돈, 학교폭력 경험 유무, 부모의 음주 및 흡연여부, 성적,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한 22문항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 4. 자료수집방법

자료는 1999년 4월 2일부터 15일까지 본 연구자들이 H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내용을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하여 SPSS Windows를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 1) 남자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실태와 인구학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2) 남자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성, 비행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최대치, 최소치를 사용하였다.
- 3) 자아존중감 정도, 우울, 사회성, 비행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 우울, 사회성, 비행행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사용하였다.
- 5) 약물남용 정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우울, 사회성, 비행행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서울시에 있는 1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 444명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학교 생활에 대한 대상자의 생각은 '차차 흥미가 생기고 있다'가 239명(54.8%)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성적은 '중간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309명(70.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까운 친구 중에 퇴학을 한 친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346명(79.3%)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교 선생님에 대한 대상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119명(27.2%), 없는 경우가 98명(22.4%)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선배나 불량배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학생인 395명(90.2%)이 없다고 답하였고 학교주변에서 불량배에게 갈취를 당한 경험은 325명(74.2%)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의 약물남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아버지의 경우 흡연과 음주 둘 다 하는 경우가 178명(41.1%)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 '둘 다 하지 않는다'가 345명(79.1%)으로 가장 높았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44)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학교생활	즐겁다	109	24.9
	차차 흥미가 생기고 있다	239	54.8
	생각없이 다닌다	61	13.9
	계속 흥미가 없다	28	6.4
학교성적	높은 편이다.	64	14.6
	중간이다	309	70.6
	낮은 편이다.	65	14.8
퇴학처분받은 친구유무	있다	90	20.7
	없다	346	79.3
선생님과의 관계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119	27.2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	98	22.4
	생각해 보지 않았다	221	50.4
한달 용돈	없음	11	2.5
	1만원 이하	50	11.4
	1-3만원	193	44.3
	3-5만원	123	28.2
	5만원 이상	59	13.6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n=444)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구타당한 경험	있다	43	9.8
	없다	395	90.2
불량배에게 당한 경험	있다	113	25.8
	없다	325	74.2
아버지 흡연·음주 양상	흡연만 하신다	68	15.7
	음주만 하신다	103	23.8
	모두 하신다	178	41.1
	모두 안하신다	84	19.4
어머니 흡연·음주 양상	흡연만 하신다	3	0.7
	음주만 하신다	78	17.9
	모두 하신다	10	2.3
	모두 안하신다	345	79.1
부모의 습관적 약물복용	있다	10	2.3
	없다	429	97.7
부모의 약물처방에 대한 태도	처방에 따른다	250	58.8
	처방에 따르려 노력한다	163	38.4
	처방에 따르지 않는다	12	2.8

2. 약물남용실태

본 연구 대상자의 약물남용실태의 빈도수와 백분율은 〈표 2〉와 같다.

술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391명(86.1%)으로 나타났고 담배는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이 223명(49.1%)으로 나타났다.

가스는 사용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4명(.9%)으로 나타났고 본드는 사용경험이 있는 사람이 3명(.7%)이었으며 그 중 지난 30일 사이에 25일 이상 사용한 대상자가 1명(0.2%)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약물들의 사용경험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극소수였고 대마초, 아편, 마약, 환각제, S정, 푸링가울은 사용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

〈표 2〉 약물남용 실태

(n=444)

구분	평생경험빈도(%)						지난 12개월동안의 경험빈도(%)		지난 30일 동안의 경험빈도(%)			
	있다	처음사용연령					있다	있다	있다			
		10세이전	11-12	13-14	15-16	17-18			1-5일정도	6-19일정도	20-24일정도	25일이상
술	391 (86.1)	83 (18.3)	59 (13.0)	133 (29.3)	110 (24.2)	1 (2)	303 (66.7)	156 (34.4)	129 (28.4)	20 (4.4)	3 (.7)	2 (.4)
담배	223 (49.1)	28 (6.2)	28 (6.2)	89 (19.6)	72 (15.9)	-	149 (32.8)	109 (24.0)	13 (2.9)	16 (3.5)	11 (2.4)	68 (15.0)
가스	4(.9)	1(.2)	1(.2)	-	1(.2)	-	2(.4)	1(.2)	-	-	-	1(.2)
본드	3(.7)	-	1(.2)	-	2(.4)	-	3(.7)	1(.2)	-	-	-	1(.2)
신나	7(1.5)	-	1(.2)	2(.4)	4(.9)	-	6(1.3)	1(.2)	-	-	-	1(.2)
각성제	20(4.4)	-	1(.2)	5(1.1)	13(2.9)	-	10(2.2)	1(.2)	3(.7)	-	-	1(.2)
히로뽕	1(.2)	-	-	1(.2)	-	-	1(.2)	1(.2)	-	-	-	1(.2)
코카인	1(.2)	-	-	1(.2)	-	-	1(.2)	1(.2)	1(.2)	-	-	-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12(2.6)	1(.2)	1(.2)	6(1.3)	5(1.1)	-	6(1.3)	1(.2)	1(.2)	-	-	1(.2)
러미나	6(1.3)	1(.2)	3(.7)	2(.4)	-	-	3(.7)	3(.7)	2(.4)	1(.2)	-	-
대마초	-	-	-	-	-	-	-	-	-	-	-	-
아편	-	-	-	-	-	-	-	-	-	-	-	-
마약	-	-	-	-	-	-	-	-	-	-	-	-
환각제	-	-	-	-	-	-	-	-	-	-	-	-
S정	-	-	-	-	-	-	-	-	-	-	-	-
푸링가울	-	-	-	-	-	-	-	-	-	-	-	-
라식스	1(.2)	-	-	1(.2)	-	-	1(.2)	1(.2)	-	1(.2)	-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1(.2)	-	-	-	1(.2)	-	-	-	-	-	-	-

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 표준편차, 범위를 산출하였다(표 3). 대상자의 비행행동의 평균은 13.31점, 범위는 8-37점으로 나타났으며(SD=3.37) 우울은 평균이 35.10, 범위가 20-68로 나타났으며(SD=8.65). 자아존중감은 평균 65.47, 범위는 30-97이었으며(SD=10.28), 사회성의 평균은 105.17, 범위는 54-140으로 나타났으며(SD=14.14).

〈표 3〉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n=444)			
특 성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비행행동	13.31	3.37	8- 37
우울	35.10	8.65	20- 68
자아존중감	65.47	10.28	30- 97
사회성	105.17	14.14	54-140

#### 4.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비행행동과 우울,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이다( $p<.01$ ). 즉 비행행동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높아지고, 사회성이 증가하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표 4〉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간의 상관관계

(n=444)			
	비 행 r(p)	우 울 r(p)	자아존중감 r(p)
우울	0.172 (.000)		
자아존중감	-0.204 (.000)	-0.563 (.000)	
사회성	0.111 (.019)	-0.395 (.000)	0.532 (.000)

것을 의미한다.

역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비행행동과 자아존중감, 우울과 자아존중감, 우울과 사회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p<.01$ ). 이는 비행행동이 높은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역시 우울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한 우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성도 저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행행동과 사회성은 순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즉 비행행동이 증가할수록 사회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행동, 우울

		비행행동			우 울		
특 성	구 분						
		평균±표준편차	F or t	p	평균±표준편차	F or t	p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즐겁다	13.41±6.87	1.523	.208	31.18±7.51	27.66	.00
	차차흥미가 생기고 있다	25.13±7.32			34.78±7.56		
	생각없이 다니고 있다	13.87±3.59			39.10±8.84		
	흥미가 없다	14.07±4.33			44.68±10.4		
학교성적	높은편이다	12.73±2.57	5.382	.005	35.12±9.32	2.03	.13
	중간이다.	13.18±3.34			34.72±8.45		
	낮은편이다	14.51±3.88			37.09±8.74		
퇴학처분받은 친구의 유무	있다	15.41±4.13	5.688	.000	35.88±9.39	0.93	.13
	없다	12.78±2.91			34.92±8.46		
선생님과의 관계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13.15±3.07	2.833	.060	33.91±8.28	1.51	.22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	14.02±4.64			35.61±8.86		
	생각해보지 않았다	13.09±2.77			35.48±8.73		
한달용돈	없 음	13.73±4.15	5.313	.000	35.45±9.68	0.13	.97
	1만원 이하	12.78±2.75			35.50±9.55		
	1-3만원	12.84±2.99			35.21±7.93		
	3-5만원	13.42±3.13			35.09±8.60		
	5만원 이상	15.02±4.62			34.41±10.3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행동, 우울(계속)

(n=444)

특 성	구 분	비행행동			우울		
		평균±표준편차	F or t	p	평균±표준편차	F or t	p
구타당한 경험	있다	15.19±4.15	3.92	.00	37.47±9.15	1.89	.06
	없다	13.10±3.21			34.84±8.57		
불량배에게 당한 경험	있다	13.56±3.16	0.915	.36	37.00±9.46	2.56	.01
	없다	13.22±3.43			34.44±8.27		
父의 흡연·음주양상	흡연만 하신다	13.14±3.14	1.737	.14	35.82±9.63	0.50	.74
	음주만 하신다	13.67±3.85			34.53±8.82		
	모두 하신다	13.08±3.14			34.79±8.19		
	모두 안하신다	13.33±3.32			35.93±8.81		
母의 흡연·음주양상	흡연만 하신다	15.33±4.16	0.954	.41	32.33±8.39	0.86	.46
	음주만 하신다	13.04±2.90			34.51±8.67		
	모두 하신다	12.20±2.25			38.90±13.8		
	모두 안하신다	13.31±3.24			35.12±8.49		
부모의 습관적 약물복용	있다	14.30±2.75	0.941	.34	40.40±8.78	1.97	.05
	없다	13.29±3.37			34.97±8.61		
부모의 약물 처방에 대한 태도	처방에 따른다	13.32±3.67	0.025	.98	34.51±9.14	1.57	.21
	처방에 따르려 노력한다	13.25±2.95			35.74±7.79		
	처방에 따르지 않는다	13.25±2.63			37.75±10.2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비행행동, 우울은 <표 5>와 같다. 비행행동과 관계가 있는 일반적 특성은 학교성적, 한달 용돈, 친한 친구 중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경험의 유무, 구타당한 경험 등으로 나타났고, 우울과 관계가 있는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불량배에게 당한 경험의 유무, 부모의 습관적 약물복용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은 '즐겁다'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

불량배에게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정도는 <표 6>과 같다.

자아존중감과 관계가 있는 일반적 특성은 학교생활, 선생님과의 관계, 구타당한 경험의 유무, 불량배에게 당한 경험의 유무, 부모의 약물처방에 대한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성과 관계가 있는 일반적 특성은 학교생활, 퇴학 처분 받은 친구의 유무, 선생님과의 관계, 엄마의 흡연·음주 양상, 부모의 약물처방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사회성

(n=444)

특 성	구 분	자아존중감			사회성		
		평균±표준편차	F or t	p	평균±표준편차	F or t	p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즐겁다	71.19± 9.20	41.15	.00	111.84±12.99	14.43	.00
	차차 흥미가 생긴다	65.76± 8.71			104.05±12.96		
	생각없이 다닌다	60.23± 9.69			101.15±15.09		
	흥미가 없다	52.03±10.97			97.07±17.18		
학교성적	높은편이다	67.14± 9.95	2.47	.09	105.19±15.53	0.16	.85
	중간이다	65.57±10.04			105.34±13.74		
	낮은편이다	63.17±11.53			104.25±14.99		
퇴학 처분받은 친구유무	있다	63.99±10.59	-1.52	.13	109.64±14.59	3.34	.00
	없다	65.84±10.25			104.09±13.88		
선생님과의 관계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	68.49±10.18	7.17	.00	108.84±13.59	5.45	.01
	존경하는 선생님이 없다	63.98± 9.91			104.02±14.84		
	생각해 보지 않았다	64.54±10.29			103.81±13.89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사회성(계속)

(n=444)

특 성	구 분	자아존중감			사회성		
		평균±표준편차	F or t	p	평균±표준편차	F or t	p
한달용돈	없 음	63.27±15.66	0.62	.65	103.73±23.39	1.80	.13
	1만원 이하	65.22±12.11			103.98±15.33		
	1-3만원	64.83± 9.61			103.69±13.23		
	3-5만원	66.45± 9.54			106.41±13.35		
	5만원 이상	65.93±11.42			108.69±15.30		
구타당한 경험	있다	61.29± 9.93	-2.80	.005	103.95±15.50	-0.61	.54
	없 다	65.94±10.27			105.35±14.04		
불량배에게 당한 경험	있다	63.16±10.33	-2.82	.005	103.04±14.39	-1.90	.06
	없 다	66.31±10.20			105.97±14.04		
아버지의 흡연·음주 양상	흡연만 하신다	65.18±10.41	0.88	.48	106.01±14.53	0.64	.64
	음주만 하신다	64.65±10.83			103.83±16.22		
	모두 하신다	66.04± 9.79			105.69±13.19		
	모두 안하신다	65.39±10.69			105.05±13.32		
어머니의 흡연·음주양상	흡연만 하신다	69.97±11.06	0.47	.70	124.33± 8.39	2.64	.05*
	음주만 하신다	65.17±11.49			105.26±15.85		
	모두 하신다	68.50±14.61			111.90±15.72		
	모두 안하신다	65.45± 9.92			104.91±13.65		
부모의 습관적 약물복용	있다	64.80±11.19	-0.21	.83	100.10±15.21	-1.15	.25
	없 다	65.49±10.29			105.31±14.14		
부모의 약물처방에 대한태도	처방에 따른다	66.66±11.30	3.82	.02	107.32±14.46	5.82	.003*
	처방에 따르려 노력	63.79± 8.49			103.13±12.73		
	처방에 따르지 않는다	65.92±10.46			98.67±21.76		

6. 약물남용 정도에 따른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

본 연구 대상자의 약물남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술과 담배를 제외한 기타 약물은 사용자의 수가 매우 적어 비교 분석에 무리가 있었으므로, 술과 담배를 남용하는 집단과 남용하지 않는 집단간에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지난 12개월 동안 음주경험이 있는 집단의 비행행동 정도의 평균점수는 1.42로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점수인 1.18과 비교하여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9.57, p=.00). 또한 음주경험이 있는 집단의 우울 평균점수는 1.80으로 음주경험이 없는 집단의 우울 평균점수인 1.69와 비교하여 볼 때 유의하게 높았다(t=2.36, p=.02). 한편 자아존중감은 음주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점수는 2.63,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점수는 2.64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22, p=.82) 사회성 점수는 음주경험이 있는 집단이 3.05, 경험이 없는 집단이 2.95로 음주경험이 있는 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t=2.58, p=.01) 비행행동과 사회성이 순상관 관계로 나타난 것과 일관성이 있으며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음주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의 비행행동 정도의 평균점수는 1.58로 흡연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점수인 1.22와 비교하여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9.41, p=.00),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의 우울 평균점수는 1.81로 경험이 없는 집단의 우울 평균 점수인 1.74와 비교하여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46, p=.15). 한편 자아존중감은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점수가 2.57, 경험이 없는 집단이 2.6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24, p=.03) 사회성 점수는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점수가 3.11, 경험이 없는 집단이 2.97로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t=3.32, p=.00) 앞의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지난 12개월 동안 음주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비행행동, 우울, 사회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2개월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비행행동, 사회성은 유의하게 높고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음주경험에 따른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 비교

	음주 집단		비음주 집단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행행동	1.42	.37	1.18	.17	9.57	.00
우울	1.80	.44	1.69	.42	2.36	.02
자아존중감	2.63	.41	2.64	.41	-.22	.82
사회성	3.05	.41	2.95	.37	2.58	.01

<표 8> 흡연경험에 따른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 비교

	흡연 집단		비흡연 집단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비행행동	1.58	.43	1.23	.20	9.41	.00
우울	1.81	.43	1.74	.44	1.46	.15
자아존중감	2.57	.41	2.66	.40	-2.2	.03
사회성	3.11	.40	2.97	.39	3.32	.00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86.1%가 음주경험이 있고 49.1%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의 84.9%가 음주경험이 있었고 36.1%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보호위원회(199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7)가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고등학생의 경우 음주가 86.0%, 흡연이 41.1%로 나타난 것과도 거의 일치하였다.

다른 약물들의 사용경험도 YMCA 동대문지회(1998)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남자 고등학생의 본드 사용 경험 3.3%, 가스, 1.9%, 각성제 3.8%, 대마초 0.5% 등으로 나타났고 일반 청소년의 경우 지놀타, 라식스, 에스징, 프링가, 프링가울 등의 약물 사용율은 0%이었던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러미나, 루비킹, 지놀타, S정, 라식스, 프링가, 프링가울 등의 약물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나(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아직은 일반 청소년의 경우 거의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주로 소년원에 입소한 약물남용 청소년에서 이러한 약물의 사용경험이 보고되고 있다(YMCA 동대문지회, 1998).

본 연구의 결과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비행행동과 우울은 순상관관계를 보였다. Puig-Antich(1982)가 우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들 중 30%가 행동장애 진단이 함께 내려진 결과를 통해 우울

과 비행행동간에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Craighead(1991)의 연구에서도 우울한 청소년의 23-30%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비행행동과 자아존중감은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Kaplan(1975)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비행행동에 개입하는 정도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비행행동과 사회성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성이 낮을수록 비행행동이 증가한다는 역상관관계를 지지하고 있다. Maccoby와 Martin(1983)은 부모가 관여를 많이 하고 자녀 중심적인 태도로 양육한 청소년은 책임감과 사회적 역량이 높고 성취지향적인데 반해, 부모의 관여가 적고 부모 중심적인 태도로 양육된 청소년은 충동적이며 일찍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하고 학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비행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비행행동과 사회성이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행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 비행 집단에 소속되면서 사회성 부분이 충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Rogenberg와 Rogenberg(1978)는 청소년기에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중요한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속집단에서는 오히려 일탈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주위의 관심을 받으며, 이것이 곧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이 비행행동을 하면서 또래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성이 높아짐을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울과 사회성은 역상관관계( $p < .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ohen 등(1985)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정서적, 정보적,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어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성 수준이 낮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은 순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oleman과 Lindsay(1992)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또래 집단의 수용감이 클수록 높아지고 사회성이 높을수록 또래 집단의 수용감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의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다.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울은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나 인식을 낮게 하므로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Stein, 1996). 또한 이현만 등(1996)은 부모가 자녀를 과보호할 경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제한되어 자아존중감이 잘 발달할 수 없으며, 어린시절 부모의 상실이나 이별을 통해 거절을 경험한 경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우울에 취약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관계를 통해 청소년 비행행동이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과 같은 심리적 변인과 연관되어 나타나며 특히 비행행동의 한 형태인 약물남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약물남용 정도에 따른 심리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음주경험이 있는 집단이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비행행동, 우울, 사회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2개월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비행행동, 사회성은 높고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며(이미형, 1996) 환각상태에서 비행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박해안, 1996)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약물을 하는 청소년이 비행 집단에 소속되면서 사회성 부분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연구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약물사용과 약물남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개념을 이해하는데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본 도구를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표준화하는 과정을 통해 약물사용과 약물남

용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약물남용이 비행행동,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성과 관련되어 나타나므로 약물남용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접근에서 청소년들의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인식하고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의 상담교사나 양호교사와 청소년 전문가가 협력하여야 하며,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도 이러한 심리적 변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미경 (1991). 수줍어하는 아동을 위한 자기표현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모 (1983). 현대 사회학 문제. 서울. 박영사.
- 김성이, 김경빈, 김보애, 김소야자, 박명윤, 주왕기, 최충욱 (199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문화체육부.
- 김소야자, 박명윤, 오가실, 김경환, 서일 (1991).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체육청소년부.
- 김소야자, 오경자 (1998). 청소년 약물사용 실태조사연구 현황보고서. 약물위원회 정책 연구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소야자, 오경자 (1998). 청소년 약물사용실태조사를 위한 표준화된 조사도구의 개발. 약물위원회 정책연구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준호, 박정선 (1995).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술, 담배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희 (1999). 청소년 약물남용의 이해-심리학적 접근-. 제7회 약물남용 워크샵 자료집, 서울 YMCA 등 대문지회 청소년 약물상담실.
- 마약퇴치운동본부 (1997).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보고서 -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대상-.
- 민영숙 (1999). 청소년 약물남용예방을 위한 웹 활용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해안 (1996).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초·중·고교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희 (1993). 약물남용의 실태와 통제방안-미국의 경우-.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이미형 (1996). 약물교육과 잠재력 개발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약물에 대한 지식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5(1).
- 이승룡 (1993).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과 적응력에 관한 연구. 전주우석대 석사학위논문.
- 이현만, 한성희 (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167-178.
- 차경수, 김성이, 김경빈, 김소야자, 박명윤, 주왕기, 최충욱 (1993).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연구. 한국청소년학회, 문화체육부.
- 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및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 현명선 (1996). 물질사용 장애 청소년의 회복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rage, D. G. (1995). Adolescent depression : a review of the literature.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9(1), 45-55.
- Cohen, S. & Willis, T.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leman, W. L., & Lindsay, R. L. (1992). Interpersonal disabilities : Social deficits in older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9(3), 551-566.
- Craighead, W. E. (1991). Cognitive factors and classification issu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311-326.
- Dielman, T. E., Shope, J. T., & Campanelli, P. C. (1987).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self-esteem and health locus of control as correlates of adolescent substance abuse. Health Education Quarterly, 14(2), 207-221.
- Emery, E.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substance use and area specific self-esteem. Journal of School Health, 63(5).
- Kandel, D. & Davis, M. (1982). Epidemiology of depressive mood in adolesc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1205-1212.
- Kaplan, H. B. (1975). The self-esteem motive and change in self-attitud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1, 265-275(a).
- Kaplan, H. B. & Martin, S. S. (1984). Pathways to adolescent drug use : self-derogation, peer influence, weakening of social controls and early substance us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5(9), 270-289.
- Maccoby, E. & Martin, J.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P.H.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Morganet, R. S. (1990). Skills for living: group counseling activities for young adolescents. Research Press.
- Puig-Antich, J. (1982).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prepuber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2), 118-128.
- Riesch, S. K., Tosi, C. B., & Thurston, C. A. (1993). Effects of communication training on parents and young adolescents. Nursing Research, 42(1), 10-16.
- Rogenberg, F. R. & Rogenberg, M. (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3), 279-294.
- Stein, K. F. (1996). The self-schema model :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self-concept in eating disorder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X(2), 96-109.
- YMCA 동대문지회 청소년 약물상담실 (1998). 청소년 유해약물에 관한 연구. 청소년 보호위원회.

- Abstract -

Key concept : Adolescent drug abuse, Conduct behavior, Depression, Self-esteem, Social skills

## Drug Abuse State and Psychological Variables in Adolescence

*Kim, Soyaja<sup>\*</sup> · Kong, Seongsook<sup>\*\*</sup> · Kim, Myungah<sup>\*\*\*</s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rug abuse status in adolescence and to aid the effective drug abuse prevention program and management an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conduct behavior',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This study was also attempted to verify a reliable and valid tool invented by Kim & Oh(1998) which is able to assess the adolescence' drug abuse state.

An exploratory descriptive design was used to describe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of conduct behavior,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in a convenient sample of 444 high school mal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use of 'Conduct behavior', 'Self-esteem Inventory', 'Social skill Inventory' and 'CES-D' instrument to measure depression. Correlational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rate of alcohol use in total subjects was 86.1% and the rate of smoking was 49.1%. Correlational analysis reveale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onduct behavior and self-esteem, social skills and depression,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nduct behavior and depression, social skills and conduct behavior,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further study to develop programs for adolescence. The tool used in this study should be modified and developed more precisely for general use.

Therefore,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to increase self-esteem and social skills could be carried out in the school and treatment setting and appropriate counseling needs to be given to students who are depressed and have a great deal of conduct behavior problems.

---

\*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 Doctoral cours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